



# 인도주의 NIE

출제 박미영 한국NIE협회장  
그림 남인아

요일별 주제 안내

月 아트 리터러시

火 시사 토론

水 인도주의

木 독서

## 1 디아스포라



### 1.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 이주



너희는 사할린에 가서 석탄을 캐야 한다.

### 2. 8·15 광복: 없어진 국적



이렇게 고생하며 번 돈을 일본은행에 강제로 예금하러니, 무슨 꿈공이일까요?

하루에 20시간이나 일을 시키다니, 헉헉.



너희는 남아서 계속 고생해라. 우리는 본토로 돌아간다.



사할린이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러시아 쪽에 있대요. 지금은 일본 땅이라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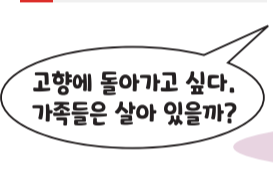
어머니, 살아서 돌아올 테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제 사할린은 우리 소련\*이 접수한다. 조선인은 탄광에서 계속 일해라.

조선에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기다린다고요.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 말. 오늘날 러시아가 소련의 후신(後身)에 해당합니다.

### 3. 오늘날: 세대 갈등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은 살아 있을까?



대체 난 러시아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친구들이 한국인이라고 놀려서 괴로워요!



아버지, 꼭 고향에 가서야겠어요? 전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직장도 가족도 다 여기 사할린에 있다고요.

디아스포라 :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 어떤 민족이 자의든 타의든 기층에 살던 터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참고: '디아스포라, 귀환, 출현적 정체성: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경험', 정근식·염미경, 재외한인연구(2000)

## 2 별칭 TALK



별이

박사님, 사할린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산다는 뉴스를 봤어요.

척척박사

그래,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한 사람들과 후손이 살고 있지.



별이

가족과 헤어질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척척박사

그래서 1990년대부터 사할린 동포가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귀국을 돕고 있단다.



별이

와, 잘됐네요. 일제강점기에 헤어진 가족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고향에 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척척박사

꼭 그렇지 않다는구나. 사할린 동포의 자녀나 손자·손녀들은 사할린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니까 한국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도 하거든.



별이

헉. 동포들이 한국에 오려면 다시 현지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니... 비극이네요.

## 4

### 함께해 봐요

#### 사할린 한인 3세에게

사할린 한인 3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생활합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나에게 한국인이라고 놀리며, 러시아의 역사·문화를 자랑하면 부러웠다” 고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죠. 사할린 한인 3세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자랑거리를 알려줍니다.

## 3 동보기



### 사할린 동포



국가기록원 제공

일제강점기, 사할린 탄광의 한인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합니다. 일본 패망 후 사할린에 방치된 조선인은 4만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이들은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죠. 1980년대에는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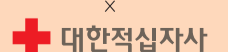
한일 정부 합의도 이뤄지면서 1989년 마침내 일시적인 모국 방문이 허용됐습니다. 199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주 귀국이 이뤄져 현재까지 약 4000명이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영주 귀국 사업을 통해 사할린 동포들이 남은 삶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인의 자부심 뽐뽐!

1.	2.	3.
----	----	----

**인도주의란(Humanitarianism)** 인간에 대한 사랑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상입니다. 인종·국적·종교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본격적인 근대 인도주의 활동은 세계 적십자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됐습니다. 어린이조선일보와 대한적십자사는 아동·청소년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도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주 지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조선일보



대한적십자사